

佛敎의 家庭倫理에 관한 研究

A Study on Family Ethic of Buddhism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李 貞 德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Prof.: Chung-Duk, Lee*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徐 炳 淑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Prof.: Kyung-Sook, Seo*

— 목 차 —

I. 序 論	IV. 불교의 근본사상에 함축된 가정윤리의 表面化 動機와 過程
II. 宗教와 家庭의 構造的 關係와 倫理的 關係	V. 불교가정윤리의 實相과 特性
III. 불교근본사상의 本源的 家庭倫理	VI 結 論

=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how the family moral principles are placed in the Buddhist Sutra, how they come up to the surface through a certain course. We set up the following five kinds of question for aim of this study.

First, in which form are the family moral principles placed in the Buddhist Sutra? That is, are they shown, divided into two between the fundamental thought of Buddhism and the concrete description?

Second, how are the family moral principles melted into the fundamental thought of Buddhism? Buddhism takes a cognitive method of pursuing one from diversification. If that is so, the family moral principles will establish the fundamental thought of Buddhism, melted along with other phenomena. When the fundamental thought of Buddhism is restored to the family moral principles, which image are they presented with us?

Third, if the family moral principles melted into the fundamental thought of Buddhism in itself came up to the surface? Buddhism has a and is mixed together.

The family moral principles of Buddhism are named from the fundamental thoughts to the family moral principles and do not come up to the surface but are melted into the important concepts of Buddhism, that is, charity, karma, nirvana, emptiness, the principle of middle way.

The aspects of the family moral principles which are melted into theses thoughts :

- 1) The concept of loving-kindness including equality, non-self, practice, is shown in the family moral principles.
- 2) The thought of karma includes the moral principles for interdependence between the building up of home and family members.
- 3) Home should be a place of self-realization from the suffering realization. This kind of home salvation should be set up by family members themselves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master that such salvation is neither to be made by others nor to be given by god is presented one should be the master of one's life.
- 4) The thought of emptiness includes the social extension of home and those of the moral principles of collective body of family.
- 5) The Buddhist family morality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middle way which means neither too extreme nor lacking.

I. 序 論

일반적으로 인간에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자 할 때 설정되었던 인간에 대한 기본단위는 「개인」이었거나 조직·사회·국가 등과 같은 「개인의 집합」 상태였다. 여기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인간의 존재나 관계성에 대한 의미의 문제를 이와같은 기존의 연구단위로 접근할 경우 존재와 관계성이라는 相補的 關係를 단절시켜 연구하게 되는 논리적 제한성을 지니게 된다.

이와같은 논리적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불교의 인식론적 방법, 즉 多에서 一을 보는 관점을 채택하여 「가정」을 인간조건의 기본단위로 보고, 개인은 가정의 분해로부터 그 상황이 나타나며 사회는 가정의 집합으로부터 출현한다는 입장에서 가정윤리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윤리의 위기와 몰락을 초래한 기반으로 Capra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데카르트적 思考方式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思考方式은 동양의 有機的 世界觀이다.

東洋의 神秘論에 있어서는, 감각에 비치는 모든 사물과 사건은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다같은 궁극적인 實在의 다른 양상 내지 顯示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동양적 관점에서는 自我를 쪼개진 對象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본원적인 것이 아니며 어떠한

대상도 활동하고 無常하게 변전하는 것으로 본다.

이와같은 동양사상의 응집체인 불교에서 가정윤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망의 필요성은, 서구적 가정윤리가 근대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유입, 확대되면서 증대되어 왔다고 하겠다.

즉, 서구가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위기가 데카르트적인 二分法的 사유방식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사회에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서구적 가정윤리에 의해 소멸되어 가고 있는 동양적 가정윤리의 실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서양의 사상과 對位的 입장에서 구성된 가정윤리가 동양적 가정윤리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문제의식에 토대를 두고, 본 논문에서는 :

첫째, 불교의 가정윤리는 경전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즉, 근본사상과 구체적 서술로 양분되어 제시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한쪽의 형태로만 제시되고 있는가?

둘째, 불교의 근본사상에 용해되어 있는 가정윤리는 어떠한가? 불교는 多에서 一을 추구하는 인식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윤리도 다른 현상과 함께 용해되어 불교의 근본사상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불교의 근본사상을 가정윤리로 복원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되겠는가?

셋째, 본래 불교의 근본사상에 용해되어 있던

가정윤리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면, 겉으로 드러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불교는 근본사상에 모든 형식적 개념을 옥축시키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불교가 전파된 이래 그 내면에 용해되어 있던 불교의 가정윤리는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같이 근본사상에 용해되어 있는 가정윤리를 드러내게 한 교리의 내면적 그리고 사회적 제요소들은 무엇인가?

네째, 근본사상에 용해되어 있던 가정윤리가, 교리 내면의 긴장요소와 사회적 변화의 수용에 의해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불교는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가정윤리를 드러 내었는가?

다섯째, 겉으로 드러난 불교의 가정윤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하는 것 등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II. 宗教와 家庭의 構造的 關係와 倫理的 關係*

III. 불교근본사상의 本源的 家庭倫理

앞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들을 탐색하는 과정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단계는 불교가 배태된 인도의 문화적 철학적 思惟方式의 특색과 불교사상을 연결시켜 불교의 가정윤리는 경전에 어떻게 함의 되어 있는가를 규명하는 단계이며, 두번째 단계는 이를 바탕으로, 불교 교리와 사회변동의 상호관계속에서 가정윤리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는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다.

1. 불교의 가정윤리의 구조(연구문제 1)

종교와 가정의 구조가 동일하고 종교가 가족적 상징체계를 어떤 대상의 상징체계보다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은, 가정의 모형이 종교의 理想的의 模型이며 가정의 생활을 통하여 종교의 이상은 실현된다는 命題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前提的 命題의 타당성은 모든 종교가 사랑

혹은 자비 등과 같이 他人에 대한 관계를 가족과 같은 관계유형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데 理想을 두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대부분의 종교가 가정의 중요성을 절대시하면서도 이에 대한 교리적 언급이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가정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정 그 자체가 자비 또는 사랑의 본질이며,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사회의 기초적 절대집단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모든 종교에서 敎理 以前의 문제로 중요시하고 있는 가정의 윤리는 종교의 사상적 특성, 즉 有神의 宗教와 無神의 宗教 간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와 같은 有神宗教는 Bellah의 지적처럼¹⁾ 가족의 상징체계가 성경속에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는 데 반하여 불교와 같은 無神의 宗教는 교리의 근본사상에 내면화되어 있는 많은 부분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지 않다. 표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본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간혹 등장할 뿐이다. 이와같은 가정윤리에 대한 언급의 종교간 차이는 無神宗教의 경우 종교적 수련을 인간 내면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²⁾.

일반적으로 인도인은 행위를 개인적 주체의 행동으로 보지 않고 여러가지 인연관계가 얽혀서 성립되는 현상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하여 들려진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들은 어디까지나 주체의 행동을 전면에 나타내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유경향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나(我)를 명백히 전면

1) R.N.Bellah 저 陳英石 譯, 「사회윤리와 종교」, 형설출판사, 1982, p92.

2) 니니안 스마트는 有·無神 宗教간의 이와같은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주에 대한 종교적인 견해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우주의 '뒤에'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며, 또다른 하나는 우주의 '뒤에' 또는 우주의 '안에' 예를 들어서 道, 空, 그리고 니르바나와 같이 영원하고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前者는 봉헌(devotion)과 누미노스 체험을 강조한다.」

(니니안 스마트 지음 강든구 옮김, 「현대종교학」, 청년사, 1986, pp218-219).

*본 장의 설명은 지면관계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1993년도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참고바람.

내세운 서양의 사유방식과 대조를 이룬다. 이와같은 無我的 사유방식은 인도인의 사고들을 지배한 범어의 문장형태에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은 개인의 행동을 진술할 때 능동태 보다는 수동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동사에서 수동태가 사용될 때가 있다.

인도인의 이와같은 사유방식이 산출한 문화속에서 불교는 배태됨으로써 불교의 사상은 경전의 첫 문장이 '如是我聞'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인도 문화의 사유적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대상의 인식방법이 多에서 一을 파악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불교에서 말하는 法은 모든 현상의 實相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 그 결과 불교의 경전은 「法」을 설명한 사상과, 현실을 예로들어 「法」을 설명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불교경전의 근본구조를 토대로 할때 가정윤리도 「근본사상」과 「구체적 記述」부분으로 나누어져 重層化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불교의 근본사상에 용해되어 있는 가정윤리 (연구문제 2)

표면화된 부분보다도 근본사상에 가정윤리가 많이 함축되어 있는 불교는 윤리사상의 기저로 慈悲思想이 자리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 자비사상은 윤리사상의 核心的 요소이긴 하지만 자비사상 그 자체는 이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불교의 근본교리를 구성하는 또다른 핵심개념들, 즉 解脫·中道觀·空思想 등이 부가되어 力動的 場에 자비사상이 들어설 때 윤리화될 수 있다.

이는 자비라는 因(원인)이 해탈, 中道, 空이라는 緣(조건)을 만나야만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는 뜻이다. 원인(因)이 조건(緣)을 통하여 특정결과를 산출하다는 인연법이 불교의 근본법이라면, 불교교리의 제 핵심개념들도 상호간의 관계라는 연기의 관계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불교의 가정윤리를 고찰해야만 불교의 근본사상과 고찰방법이 일치성을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불교의 가정윤리는 근본사상에서 「가정윤리」로 지칭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기 보다는 모든 대상을 포용하는 불교의 근본 개념들, 즉 자비·

연기·해탈·空·中道 사상등에 용해되어 있으므로 불교경전의 重層性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근본사상에 그것이 어떻게 용해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불교의 가정윤리가 근본사상에 용해되어 있다면, 그 근본사상을 통해 가정윤리를 복원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근본사상을 통해 복원해 본다면 불교의 가정윤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1) 慈 悲

慈(maitri)란 친구를 뜻하는 밋(mitra)의 파생어이다. 따라서 慈는 진실된 우정을 극대화한 상태, 즉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우정을 표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悲(karuna)의 원뜻은 「탄식」으로, 이는 남의 괴로움을 보고 탄식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가엾이 알고 도와서 그 괴로움을 없애주는 일이다.

이 자비가 기독교의 「사랑」과 다른점은 어떤 경우에도 중생을 버리는 일이 없고 중오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독교의 사랑은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해도 이를 끝내 거역, 배반했을 때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벌이 따른다. 그것은 심판이라는 조건이 붙은 사랑이기 때문에 神을 전제하는 종교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불교의 자비는 神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신의 심판이라는 조건이 따르지 않으며 그 결과 자비는 무한정하다는 것이 특징이다³⁾.

이와같은 자비의 어원에서 발견되는 두가지 事實態는 :

첫째, 慈의 속성은 주종관계가 아닌 평등관계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가 아닌 전체를 지향한다는 점이며

둘째, 悲는 타인의 고통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슬픔극복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미로서 결별자로서의 「다수」가 나(자기자신)라는 「하나」로 통합되는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慈悲는 平等性, 無我性, 力動性, 實踐性이 내포된 사랑의 개념이다. 이와같은 多元的 意味로서의 慈悲思想이 가정윤리에 투사될 때 나타나는

3) 萬海 韓龍雲 편찬 李元燮 역주, 「弗教大典」, 玄岩社, 1980, p133.

가정윤리의 相은 ;

(1) 부부간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평등하고

(2)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 있는 서로 다름의 無我的 통합이 가정의 자비적 평등이며,

(3) 가족구성원 각자의 독립된 인격체를 인정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 아내는 남편에 대해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 대해, 자식은 부모에 대해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것이 가정적 자비의 윤리이고

(4) 이와같은 평등성과 無我性에서 사랑이 실천되어야 자비가 되고 자비는 윤리적이어야 역동성을 지닌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2) 緣起說

일체만물의 현상은 연유하여 일어난다는 것이 연기법이다.

四法印을 기초로 구성된 연기법은, 불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연기」를 설하는 종교라고 할 정도로 佛敎敎義의 기본을 이루는 원리이다. 원시경전 중에 「緣起를 보는자는 法을 보는 것이며, 法을 보는 자는 나(부처님)를 보는 것이다」라는 글이 있듯이 연기설은 불교의 중심사상이며, 불교의 교리를 대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연기법은 경전 곳곳에서 寂滅相, 實相, 空想, 無有性, 假名, 中道 등 여러 형태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 연기법의 다양한 설명의 面面을 살펴볼 수 있다.

일체만물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라면 불교사상의 제 개념, 즉 慈悲·解脫·空·中道 등의 개념도 서로 연결된 사상들이지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와같은 相依相關속에서 가정윤리를 파악할 때 나타나는 불교적 가정윤리의 相은 ;

(1) 가정윤리는 <慈悲>를 因(원인)으로 하고 無我·空·解脫·輪廻·中道 등과 같은 다른 개념들을 緣(조건)으로 하여 가정내의 夫婦, 父母-子息, 형제 자매간 역할관계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2) 이들의 윤리관계는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自他合一의 자비, 즉 無我的 合一의 사상을

주로 하고 血緣을 從으로 한다. 夫婦는 一心同體이며 부모-자식간의 관계는 天倫이라는 생각은 혈연에 의해서라기보다 인연에 의한 상호의존 관계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깊기 때문에 인연의 멀고 가까움을 기준으로 가족과 타인을 구분지를 따름이다.

3) 解脫

분다가 생각한 解脫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생사윤회의 解脫이 아니라 인간의 참된 모습을 깨달아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해탈은 모든 생명이 제 스스로의 주인이 되며 한몸이 되는 세계이다. 한몸이 되는 세계는 모든 갈등과 망상이 가라앉은 열반의 세계,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世界, 世上의 본래 모습과 자신의 佛性을 자각하는 깨달음의 世界인 것이다.

세계건설에 있어 자신이 주인이라는 解脫觀을 토대로 가정윤리를 투사할 때 나타나는 불교적 가정윤리의 상은 다음과 같다.

(1) 가정과 사회가 서로 일치하되 가정의 사회화가 아니라 사회의 가정화가 解脫이다. 따라서 불교의 해탈적 가정관은 가족구성원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구속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즉 남편은 아내를 속박해서는 안되며 아들과 딸의 차별이 있어서도 안되고 가정은 물질적 결핍에 의한 질곡으로부터도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인격이 존중됨으로써 한 몸이 되는 세계여야 한다. 곧 불교의 가정관은 모든 갈등과 망상이 가라앉은 열반의 세계,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세계, 자신의 불성을 自覺하는 깨달음의 세계가 가정이 되도록 가꾸어야 한다는 적극적 의지를 지니고 있다.

(2) 이러한 해탈적 가정은 가족구성원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인의식을 지녀야 한다.

4) 空觀

「依存性(因緣)을 우리는 空性이라 한다. 그 空

性은 假名이며 그것은 中道와 同一한 것이다. 依存하지 않고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空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는 나가르주나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개념은 靜의 개념이 아니라 動的 개념이며 無我에 해당한다. 또다른 표현에 우주도 인생도 空이며 주관도 객관도 空이고 空자체도 空이라는 空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의 가정윤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첫째, 空觀은 自意識을 배제한 상태로 보았을 때의 實存相이라는 점이다. 인도의 我를 배제한, 다시말해 主格을 배제한 사유방식이 空觀인 것이다. sunya란 원래 「공함,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의미로서 이 경우에는 의식이 의지할 바가 아무데도 없다는 뜻이다⁴⁾. 여기서 의식이 의지할 바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은 자신의 我를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자기중심적이 아닌 보편적 我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大命題이기 때문이다.

둘째, 空思想은 事物을 고정된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사건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분다의 주요한 가르침 중의 하나는 모든 복합된 事物들은 無常하다는 것이었다.

(1) 위와같은 「空」개념은, 가정윤리에서는 「空」이 「共化」된다. 다시말하여 가족구성원 각자는 서로 의존관계속에서 존재하는데, 이때의 의존관계는 자기를 있도록 한 緣起的 인연의 절대적 의존관계를 지닌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空은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생존이 존재한다는 공동체 윤리의 철저성을 의미한다.

(2) 家庭의 생활은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속성을 근본으로 한다는 것이, 空사상이 가정에 적용될 때 지니는 또다른 측면이다. 다시말하면 부모는 자녀가 자기의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 하고 자녀는 父母가 평안하도록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가족구성원이 된 각자는 전체 가족의 부분이면서 각자가 주인으로서의 적극적인 생활의 場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 「空」의 多元的 單一印象이라는 측면이 家庭倫理에 부가하는 제 3의 의미는 각자의 다원적

의미, 즉 자녀에게는 부모이며 처에게는 남편이고 자기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의 입장이라는 한 개인의 복합적 역할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화롭게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5) 中道思想

불교의 中道思想은 불교의 관념적 근본사상을 인간의 실제생활에서 실천할 때 지켜야 할 사상이다. 불교의 諸思想을 文字에 매이지 않고 총체적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실천틀이 中道思想이다.

원시불교의 실천법은 「八正道」 또는 「八聖道」라 부르고 있다.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노력, 바른 생활, 바른 마음씨, 바른 정신통일(三昧)」의 여덟가지이다.

이 팔정도의 실천을 中道라 하며, 불고불락(不苦不樂)의 中道를 의미한다.

慈悲도 지나치면 慈悲의 내용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특정가치의 지나친 추구는 그 자체로서의 의존관계의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에 이는 취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 불교의 중도사상인 것이다.

이와같은 중도사상은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윤리의 영역에서는 특히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불교의 中道思想에서 가정윤리를 보았을 때 드러나는 모습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가족구성원간의 자비적 관계가 너무 지나쳐도 너무 부족해도 안된다는 점이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간 상호관계는 각각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위치를 지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자비라야만 자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승만경」의 「十愛章」에서는 자비의 析伏과 攝愛로 설명하고 있다. 즉 모든 惡律儀 및 모든 犯戒를 보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나 그러한 衆生을 마땅히 절복할 자는 절복하고 섬수할 자는 섬수함으로써 법을 지키는 것이 자비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⁵⁾.

둘째, 가정윤리에서의 中道思想은 본능적 혈연적 욕망에 기초한 윤리관의 탈피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끝없는 욕망의 탈피를 無所有로 방향지워

4) 陸禎倍 편역, 「불교윤리개설」, 경서원, p145.

5) 최석호, 「인간분다—그 위대한 삶과 사상」, 중앙불교연구원 출판부, 1990, p385.

中道를 설정하듯이 가족의 윤리는 혈연적 생물학적 본능과 사회적 인격체간의 中道的 영역안에서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개인과 다수간의 中道的 倫理觀, 이것이 가정윤리이며, 一即多, 多即一의 윤리가 가정윤리의 本領이기 때문에 社會倫理의 이념형으로 사회의 家庭化가 추구되고 있는 것이다.

IV. 불교의 근본 사상에 함축된 家庭倫理의 表面化 動機와 過程

1) 가정윤리의 表面化 動機(연구문제 3)

도로부터 一을 보고자 하는 명상적 인식방법으로 불교가 인간내면의 세계를 통해 인간의외부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함으로써 家庭倫理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활윤리가 모두 불교의 근본사상에 용해되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의 出家는 孝를 근본으로 하는 중국인들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처럼 佛敎의 근본사상에 내재되어 있던 가정윤리가 걸으로 드러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두가지 측면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첫째는, 出家의 불교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간의 긴장국면이며

둘째는, 佛敎의 생활태인 인도사회에 상업중심의 계층이 출현, 상업중심의 도시가 발달되어 초래된 사회의 변화와 근본 교리간의 긴장국면이라 할 수 있다.

출가의 불교적 의미는 깨달음에 중점이 주어진 행위이다. 이 행위는 불교가 孝를 중심으로 중국에 전래되었을 때 세속적 가정윤리인 孝에 의하여 강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불교가 孝중심의 유교적 문화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불교의 출가는 不孝가 아니라 더 큰 孝이며, 불교가 가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증거로 보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이와같은 필요성에 의해 불교는 근본사상에 내재되어 있는 가정윤리를 표면화시키게 되었다는 점에서 불교의 가정윤리 表面化의 첫째 동기는 유교문화권에 대한 불교의

전파에 있다고 하겠다.

두번째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불교의 수용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 근본 불교는 명상적 개인중심의 수행을 중시하고, 분석적인 사유를 통해 대상을 인식하며,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나한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보고, 행위(실천)를 知·情·意 중 意, 즉, 뜻에 의한 결과로 보았으며, 그 결과 이성과 감정중 理性을 중시하였다.

이와같은 근본불교의 특성으로 인하여 초기불교는 일상생활과 유리된 교학중심의 난해성과 철학성으로 흘러갔다. 이에 상업을 기반으로 한 일반在家 신도들의 일상생활이 반영된 불교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중심이 된 보살단은 승려중심의 근본불교를 재가 신도 중심의 生活佛敎로 혁신시키는 사회세력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같이 사회구조의 변화는 생활불교의 필요성을 증가시켰고, 대중의 생활불교는 근본불교와의 차별화를 위해 추상적인 철학적 교리보다 구체적인 生活佛敎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생활불교의 지향이 바로 근본사상에 내재되어 있던 가정윤리를 걸으로 드러나게 한 두번째 동기였다고 하겠다.

2) 불교근본사상에 용해되어 있던 가정윤리가 걸으로 드러나는 과정상의 특징(연구문제 4)

연구문제 3에서 밝혀진 理由에 의하여 불교의 근본사상에 용해되어 있던 가정윤리는 걸으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그 표면화는 불교가 전래된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불교가 지니고 있던 反 가정성, 즉, 出家의 문제가 크게 비판되었던 곳도 유교문화인 중국에서였고, 보살단 중심의 대승불교가 수용되어 융성한 곳도 중국이다. 따라서 근본사상에 내재되어 있던 가정윤리가 걸으로 드러나는 작업도 불교가 中國에 토착화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상의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윤리는 孝를 중심으로 표면화됨으로써 「大無量壽經」, 「觀無量壽經」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孝는 아미타불의 왕생신앙과 결부된 정도로 크게 강조되고 있으나, 가정윤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부부, 부모-자식 윤리에 대해 쓰고 있는 「六方禮

經」의 세부적인 孝에 비해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佛敎는 반가정적 宗教」라는 유교의 비난에 대해 불교가 대응해 나가는 방법을 보면;

(1) 적기는 하지만 인도불교의 경전에 있는 분다의 전생담을 중심으로 하여, 간접적으로 그리고 단편적으로 다른 <經>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부수적으로만 다루어진 孝 관련 부분을 한역하여 불교에서도 孝를 중요시 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2) 경전 곳곳에 산재해 있는 孝 관련내용을 한데 모아 孝를 보다 불교적으로 체계화 하면서

(3) <父母恩重經>, <孟蘭分經>, <佛說孝子經>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孝에 관련된 경전을 새로이 저술해 孝중심의 중국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4) 그러나 중국에서의 가정윤리 표면화는 인도의 경전에 母父로 되어 있는 것을 父母로 순서를 바꾸어 번역한 사실이나 <玉耶經>같은 가부장적 「經」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교의 근본사상이 표출된 것이 아니라 유교적 가치와 상치되는 부분은 근본사상의 내용을 억제시키고 유교적 윤리로 대치하여 편찬되고 있다. 따라서 표면화된 가정윤리를 살펴볼 때는 중국의 유교적 사상이 유입된 부분은 배제시키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V. 불교가정윤리의 實相과 특성(연구문제 5)

불교윤리의 중심개념인 자비는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가정윤리도 평등을 기본구조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가 일방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쌍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도리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도리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간의 윤리도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의무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로 쌍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같은 쌍방성은 불교 가정 윤리의 대표적 경전인 「六方禮經」에 잘 나타나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불교의 가정윤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夫婦倫理

불교의 부부윤리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화목이다. 친구이며, 같은 인생의 길을 가는 도반(道伴)으로 부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불교에 있어서의 부부관계는 평등을 기초로 한 慈悲를 통해 형성됨으로써 남편이 아내에 대해,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 해야 할 도리라는 쌍방적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夫道; 1) 아내를 존경하고, 2) 아내에 대해 예절을 지키며, 3) 스스로의 정조를 지키고, 4) 가정일을 아내에게 맡기며, 5) 아내에게 의복과 패물을 줄 것.

婦道; 1)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2) 집안에서 부리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3) 스스로의 정조를 잘 지키며, 4) 남편의 수입을 낭비하지 말고, 5) 가사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을 것.

2) 父母-子女간 윤리

(1) 母父 호칭순서와 父母-子女관계의 불교적 특성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父母라고 아버지를 먼저 부르고 어머니를 나중에 부른다. 그러나 원시불교 경전에는 어머니를 아버지보다 앞에 두어 母父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되었지만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어 漢譯될 때 유교적 사상과 배치되는 불교의 사상은 억제되고 그것이 중국적인 가부장적 유교사상으로 변모되어 나타났다는 점과, 남자중심의 사회에서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를 남녀평등의 관계로 시정하기 위해 불교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점이라 하겠으며, 이와같은 남녀의 평등에 대한 의식은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불교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부모의 은혜와 孝

부모와 자식관계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 즉 孝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孝를 강조하기에 앞서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 후에 부모의 은혜를 바탕으로 孝를 강조하는 체계성을 유지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부모의 크나 큰 은혜를 태내에서의 은혜와 태어난 후 키워주신 은혜로 나누어 10가지 시씩 들고 있는데, 우선 먼저 태내에 자식을 잉태하여 어머니가 받은 고통을 중심으로 설한 10가지 은혜를 보면 임신 10개월간의 월별 성장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고통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출생후 길러주신 10가지 은혜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은 매우 감동적인 서술을 하고 있어 그 내용을 간추려 열거해 보면 :

- ① 아기를 태내에서 열달 동안 지켜 주신 은혜
- ② 해산할 때 받으신 고통의 은혜
- ③ 자식을 낳고 모든 근심을 잊으신 은혜
- ④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먹여 주신 은혜
- ⑤ 마른 자리 내놓고 젖은 자리 누우신 은혜
- ⑥ 젖을 먹여 길러 주신 은혜
- ⑦ 더러운 것을 깨끗이 빨아 주신 은혜
- ⑧ 멀리 떠난 자식 생각하신 은혜
- ⑨ 자식을 위해 나쁜 일도 하신 은혜
- ⑩ 자식이 아무리 나이 들었더라도 끝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시는 은혜등이다.

이와같은 은혜를 들어 불교에서는 부모에게 孝道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孝道는 두단계로 나누어져 제시되고 있다. 첫째 단계는 세속적 가치의 孝로서 일반 재가신자들의 일상적 孝와 두번째 단계는 부모님을 佛法에 귀의시키는 단계로 되어 있다.

첫째 단계인 세속적 가치의 <孝>로 거론된 내용은 :

- ① 부모님이 나를 길러 주셨으므로 그분들을 마땅히 돌봐 드려야 한다.
 - ② 부모님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다하자.
 - ③ 家系를 존속시키자.
 - ④ 財産을 상속하자
 - ⑤ 조상의 영혼에게 때맞춰 供物을 봉헌하자.
- 는 것들인데,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서술 방식이 일방적인 명령으로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자녀의 자발적인 결의로서 서술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孝에 관련된 경전의 내용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長阿含』의 <善生經>(부모가 하는 일에 순종하여 거역하지 않는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漢譯된 경전에는 유교의 효 윤리사상이 본래의 불교사상에 첨가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두번째 단계인 <불법에의 귀의>는 불교의 孝강조가 세속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종교적 승화를 시도하고 있는 단계이다. 즉, 만약 부모가 信心이 없거든 신심을 일으키게 해야 하며, 戒를 지키지 않으면 戒에 머물게 하고, 성질이 인색하거든 보시를 행하게 하며,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일으키게 하여 부모님을 불법에 귀의 시키는 것이 가장 큰 효라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에서의 효는 후대에 이르러 세속적 孝와 불교적 신앙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불교의 효는 궁극적으로 후자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3) 부모-자식간 윤리

효중심의 이러한 가정윤리적 가치는 부모-자식간 윤리에서 불교윤리의 근본인 자비를 근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쌍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선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살펴 보면 :

- ① 생업에 정진한다.
- ② 아침 일찍 일어나 하인들로 하여금 때에 맞추어 밥을 짓게 한다.
- ③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 ④ 부모의 은혜를 생각한다.
- ⑤ 부모가 병이 들면 의사를 불러 치료한다.

등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의무로서는 :

- ① 자식을 보살피 악행에 빠지지 않게 할 것.
- ② 바른 것을 가르쳐 주고 모범을 보일 것.
- ③ 학문과 기능을 가르칠 것.
- ④ 적당한 배필을 맺어 줄 것.
- ⑤ 적당한 시기에 가산을 상속할 것.

등이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불교 가정윤리의 또다른 특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3) 친족윤리

친족을 대하는 기본 태도로, 불교에서는 그들을 으뜸가는 벗으로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친족을 <벗>이란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덕목으로 불교에서 내세우고 있는 실천 윤리를 보면;

- 첫째, 친척이 죄악을 범할 때는 이를 말리고
- 둘째, 친척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빨리 이에 대처하며
- 셋째, 자기의 사사로운 일은 그들에게 말하지 말고
- 네째, 서로 사랑하며
- 다섯째, 모든 물건은 다소를 불문하고 서로 나누어 주라는 것이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친척을 벗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불교에서의 「벗」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과는 달리 自他合一의 자비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부부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를 서로의 「벗」으로 언급하고 있음은 불교의 가정윤리를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문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4) 핵심적 가정윤리에 관련된 二次的 倫理들

부부간, 부모-자식간, 친족간 윤리는 가정윤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불교의 이와같은 핵심윤리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분다 당시 인도사회의 「家の 문제」 「家庭觀」 「結婚觀」 「가정생활과 가정儀禮」 「性윤리」 「여성觀」 「여성이 출가할 때의 자세」 등 가정에 관련된 二次的 倫理의 이해에 있다고 하겠다.

VI. 結 論

불교는 가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 가정화를 멀리 했던 종교이다. 종교는 가정의 확대를 지향한다는 보편률에서 볼 때, 어느 종교보다도 불교는 가정에 대한 思考를 철저히 했던 종교였다고 할 수 있다.

불교는 우주의 가정화를 위해 현세의 가정을 어느 종교보다도 철저히 부정하고자 했으며, 동시에 下化衆生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의 가정화를 위해 어느 종교보다도 철저히 현세적 가정윤리의 불교화를 시도하였다.

이와같은 불교의 가정윤리적 生命力은 있는 그대로 사회 일반에 투영되지 못하고 上求善提의 현세 가정의 부정관만이 강하게 투영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이 靜的인 위치에 머물러 왔다.

이의 책임은 불교사상의 총체적 해석을 벗어나 부분적 해석에 몰입되어 왔던 기존의 불교학적 흐름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다의 근본사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할 수 있다.

불교의 이 「돌아가는 길」에서 가정윤리와 관련하여 발견되는 중요한 사항은 오늘날 산업사회의 핵가족화 시대에서 당면하고 있는 가정윤리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代案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다른 연구자들이 불교의 가정윤리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때 추구해야 할 연구방향은 불교 교리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가정윤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代案을 찾는 데 있다고 하겠다.